"일본전 반드시 이겨야 한다"

2007 아시안컵축구 정상도전에 실패한 베어벡호가 '영원한 맞수' 일본을 상대로 마지막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결승 문턱에서 좌절한 축구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오후 9시35분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경기장에서 일본과 2011년 아시안컵 자동진출권이 걸린 3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 혈투를 벌이게 된다.

베어벡호, 내일 오후 9시35분 3·4위전

2011년 아시안컵 본선진출권 걸려있어

이라크와 120분 혈투에 이은 승부차기에서 패하면서 베어벡호의 사기와 체력은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최종 상대가 일본인 만큼 더 이상 좌절을 겪지 않겠다는 각오 뿐이다.

25일 밤 태극전사들은 결승진출 실패의 쓰린 속을 안고 숙소로 돌아와 늦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패배의 아픔을 곱씹었다.

이 자리에서 베어벡 감독은 "오늘 결과를 빨리 잊어라. 3-4위전도 중요하다"며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한국 축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자"고 강조했다.

한국 축구에 몸담은 지 7년 째를 맡는 베어벡 감독 역시 한일전의 무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3-4위전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더구나 이번 대회 1~3위까지 2011년 아시안컵 본선 자동진출권이 주어지게 돼 이번 한일전은 결코 내줄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됐다.

베어벡 감독은 선수들이 두 경기 연속 연장혈투를 벌이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다고 판단, 26일 오전에 예정됐던 회복훈련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4시30분 비행기편을 통해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이동했다.

한일전을 맞아 베어벡 감독은 휴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던 이근호(대구), 김치곤(서울)을 비롯해 출전시간이 적은 송종국(수원), 김동진, 이호(이상 제니트) 등의 '백업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 만큼 그동안 5경기를 치르면서 조직력을 다져온 베스트 11의 윤곽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라크전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다쳐 이날 오전 인근 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한 최성국(성남)은 일본전 출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계대상은 이번 대회 4골로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다카하라 나오히로(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나란히 2골을 기록중인 '프리킥의 달인' 나카무라 순스케(셀틱)와 마키 세이치로(제프 이치하라)의 삼각편대다.

더불어 올림픽대표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측면 미드필더 미즈노 고키(제프 이치하라)도 요주의 인물이다.

미즈노는 지난해 11월 올림픽 대표팀 한일 평가전에서도 끊임없는 오른쪽 측면 돌파로 동점골 어시스트를 기록, 한국 축구팬들에게도 낯이 익은 얼굴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26일 모로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허큘리스 육상대회 여자 100m에서 선수들이 힘찬 스타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령탑 교체 말할 때 아니다"

대한축구협회

"지금은 사령탑 교체를 말할 시기가 아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07 아시안컵축구 정상문턱에서 좌절한 핌 베어벡 감독의 향후 거취 문제를 놓고 "대회가 끝나고 귀국한 뒤 논의할 문제"라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쿠알라룸푸르에 머물고 있는 가삼현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25일(한국시간) 저녁 한국-이라크전이 끝난 직후 "아직 대회가 끝난 것이 아니다. 3~4위전을 치러야하는 만큼 지금은 감독을 흔들 때가 아니라 힘을 실어줄 때"라고 밝혔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1승1무1패로 8강에 진출했을 때도 이영무 기술위원장 역시 "사령탑 문제는 대회를 마친 뒤 얘기해야 할 사항이다. 결과를 보고 논해야 한다. 지금은 남은 경기에만 집중해야 할 때"라며 즉각적인 반응을 피했다.

감독 경질문제에 대해 축구협회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베어벡 감독 스스로 4강 진출을 자진 사퇴의 '마지노선'으로 확실히 그었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축구협회로서는 앞장서서 감독 경질의 분위기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태다.

더구나 아시안컵을 앞두고 해외파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빠지면서 어느 정도 부진이 예상됐던 만큼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 4강에 오른 것 만으로도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스포츠중계

27일(금)

▲제59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1(13 : 00·KBSN Sports), 준결승2(15 : 3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두산-롯데〉(18 : 20·KBSN Sports), 〈KIA-삼성〉(18 : 30·MBC ESPN)

▲맨체스터Utd아시아투어〈맨체스터Utd-광저우〉(22 : 00·MBC ESPN)

박주영 '최고의 골잡이'

역대 득점왕들 선정

박주영(22·FC서울)이 프로축구 K-리그 역대 득점왕들에 의해 현역 최고 골잡이로 뽑혔다.

월간 축구전문지 '베스트일레븐'이 K-리그 국내선수 득점왕 모임 '황금발'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현역 최고 골게터를 물어본 결과 박주영이 41.8%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지지율은 회원당 3명씩 골잡이를 뽑도록 해 가중치를 두고 점수를 매긴 뒤 총점에서 비율을 따지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2위는 이천수(울산·11.8%), 3~5위는 우성용(울산·10%), 염기훈(전북·9%), 모따(성남·8.1%) 순이다.

역대 최고 골잡이를 묻는 질문에는 처음 100골을 돌파한 윤상철을 지지한 표가 16.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최순호(14.2%), 김도훈(10.4%), 이기근, 이태호(이상 9.5%)가 꼽혔다.

역대 최고 수비수로는 홍명보가 1위를 자치했고 박경훈, 정용환, 최진철, 최강희가 뒤를 이었다. 역대 용병 중에는 라데를 단연 최고로 꼽았고 샤샤, 사리체프, 피아퐁 순으로 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형 골잡이 후계자는?

베어벡호가 2007 아시안컵축구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조별리그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25일(이하 한국시간) 이라크와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했다. 결과도 결과지만 더 큰 문제는 불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이다. 특히 골 결정력이 뼈아팠다.

한국은 준결승까지 5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3골에 그쳤다. 특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인도네시아전 전반 33분 김정우(나고야)의 결승골 이후 무려 297분 동안 침묵했다.

한국 축구는 이회택, 차범근, 최순호, 황선홍 등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현재

이회택·차범근·황선홍 등 옛 스트라이커 계보 이어갈 걸출한 원톱 스타 발굴해야

이들의 명맥을 이을 만큼 폭발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대형 골잡이를 꼽기란 쉽지 않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기록한 세 골도 스트라이커의 발끝에서 터진 것이 아니었다. 특급 공격수의 부재는 용병을 선호하는 K-리그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 선수들로만 최전방 공격 라인을 꾸리는 팀은 김은중, 정조국, 박주영이 버틴 FC서울 등 극히 일부다. 대부분 용병을 전면에 배치한다.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당장의 성적 때문에 외국인 공격수들을 즐겨 찾는다.

올 시즌 프로축구 정규리그 득점 순위 10위 안에는 13경기에서 무려 10골을 기록한 까보레(경남)를 비롯한 외국인 선수가 8명이나 포진해 있다.

한국 선수 중에는 이근호(대구·6골)와 이천수(울산·5골) 둘 뿐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프로축구 6시즌 동안 토종 골잡이가 득점왕에 오른 것도 2003년(김도훈)과 2006년(우성용) 두 해 뿐이다.